

/지역 단신/

함평군 '글로벌 경영대상' 대상 수상

함평군이 지난 15일 일본 능률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 4회 글로벌 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2004년에 이은 이번 수상으로 경영능력을 거듭 인정받아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함평군은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지역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 나비상품 '나르다(Nareda)' 브랜드를 개발, 46억여원의 판매고와 로열티 수입을 올려 자주재원을 확충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금당중 남예슬양, 담양 창명고 수석합격

담양 창명고등학교 (교장 박형선)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순천금당중 졸업예정인 남예슬(16·사진)양이 수석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남예슬 양은 "세계속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장래 포부를 밝혔다. /담양=차재희기자 jhwha@



김옥민 해민병원장 장학금 5천만원 기탁

지난 61년부터 부랑아와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원에서 45년간 봉사활동을 벌이다 67세를 일기로 지난 달 타계한 고 인숙재원장의 자녀들이 5천만원의 장학금을 해남군에 기탁했다.
임원장의 장남인 김옥민(44·해민병원장)씨는 "해남 발전을 위해서는 후학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스페이스캠프 부지 적절치 않다”

고흥군의회 신태균의원 “급경사지 공사 어려워”

청소년위원회 “접근성 나쁘고 공사비 과다 소요”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인 국립 고흥스페이스캠프 설립 예정부지가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다, 부지 정리 및 기반시설 조성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흥군의회 신태균 의원(과역면)은 지난 14일 군정질의를 통해 현재 부지로 선정된 동일면 덕흥리 일대는 ▲환경보존 가치가 높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예정부지 9만 평 가운데 이용 가능한 곳은 3만 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급경사여서 시설물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부지 선정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고흥스페이스캠프 주무부서인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의 현지 실사결과, 예정 사업비 480억 원으로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예산증액 요구도 무산된 점 등을 들어 부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동일면 덕흥리 일대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 전체 부지 규모에 비해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며 부지 재선정을 고흥군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지 정리비용이 건물 건립비에 육박하는

耶0억~100억 원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일부 주민의 반발만 의식하지 말고 대체 입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주센터 관계자도 과역면 소재 군유림의 경우 ▲77번 국도 과역IC에서 2분 거리에 있고, 여수와의 연도교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40억 원이 소요되는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매입 비용이 필요 없고 ▲부지조성 비용도 20억 원대로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 부지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구두 권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공식문서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상추 수경재배기술 독자 개발 웰빙 열풍에 고소득 예약

나주 50대 농업인 결실

나주출신 50대 농업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추 수경재배기술로 무공해 농법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철(51·나주시 남외동)씨는 4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난 5월 상추 수경재배(흙을 사용하지 않고 수용성 영양분으로 만든 배양액 속에서 작물을 키우는 농법)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여 년 동안 배와 백합 농사를 지어왔던 한씨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공해 농산물만이 저가의 외국 농산물에 맞설 수 있다고 판단, 새로운 수경재배 기술개발에 과감히 뛰어들어 결실을 맺었다.

한씨는 400여 평의 시설하우스에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상추 재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

한씨의 수경재배 상추는 일반 상추에 비해 성장속

도가 빠르고 무공해여서 2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씨의 비닐하우스는 연료 절감효과가 탁월하다.
하우스 실내온도는 10도 내외, 수경액 온도는 17도를 유지해 다른 작물재배에 비해 70%가량의 연료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씨는 “실외에 빠진 농민들에게 새로운 재배 기술을 제공할 생각”이라며 “수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박치기왕’ 김일 체육관 만든다

고흥군, 30억 들여 복합체육시설 형태 조성

고흥에 박치기왕 ‘고 김일선수 기념 체육관 건립’이 추진된다.

고흥군은 지난 10월 타계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국비 15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념체육관은 금산면 어전리 일대에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들여 500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군은 기념관이 포함된 복합 체육시설 형태로 건립해 그동안 체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확보는 물론, 거금도 연육·연도교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신중식 국회의원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주민대표들은 지난 13일 도쿄 아카사카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김일 선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15일 귀국했다.

김일 선수의 일본 이름을 딴 자서전 ‘오오키 긴타로의 투혼’은 일본의 유명 출판사인 고단샤가 발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말 ‘박치기왕 김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영암경찰 ‘안보홍보게시판’ 설치
영암경찰서(서장 김영근)가 최근 대불산단 공행로 입구에 안보홍보게시판을 설치했다. /영암=김한빛기자 hnkim@

순창 JC회장 서재호씨

JC 특우회장 김용욱씨



제 32대 순창청년회의소(JC)회장에 서재호(37·사진 왼쪽)씨, 제 18대 순창 JC특우회장에 김용욱(50)씨가 지난 14일 취임했다. 신임 서회장은 “JC가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참다운 청년조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 김용욱 특우회장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JC특우회를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흥식기자 hsllee@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별칭 그대로

수출나라에서 조만간 함께 세계에 나갈 준비를 마친 최정숙 호텔입니다!
기대를 기대하십시오!
[순창·여수·부산·제주 등 전국시점 모집중]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예약 접수중

☎ 광주·장광·광주·여수·이리·타타리무스
414-25-1111-1111-1111-1111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자랑스럽고, 근면하게
자랑스럽고, 근면하게 사마리온 호텔

100% 한국산 재료로 만든 고급음식
전선반 고급음식, 만능반 요리맛
[순창·여수·부산·제주 등 전국시점 모집중]

입소용 전문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입소용 냉·난방기 - 슬수록 돈 버는 센추리

75% 연료비 절감!

무보증 장기일부

무연료 냉·난방

>> 무보증,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

무보증,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무보증,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1588-8717, 062-266-7541

우성온수매트!

15년전부터 [우성온수매트]에서 만든 말을 수 있는 제품

다지탈털매트/블루투스/인체센서/안락스파

100% 한국산 재료로 만든 고급음식

전선반 고급음식, 만능반 요리맛

1588-8717, 062-266-7541

1600-7234